

이강인·백승호 가세, '젊어진' 벤투호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이 11일 경기 파주시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 대강당에서 오는 3월 A매치에 나설 소집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백승호, 이강인을 최초 발탁했다.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시 뛰는 벤투호가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았다. 그 중심에는 이강인(18·발렌시아)과 백승호(22·지로나)가 있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11일 오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3월 A매치에 출전할 2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한국은 22일 오후 8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

와 격돌한다. 2018 러시아월드컵과 같은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들을 위주로 지난 1월 아시안컵을 소화했던 벤투 감독은 이번 명단에서 적잖은 변화를 줬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역시 이강인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이강인은 만 18세20일로 역대 7번째 빠른 A대표팀 발탁자가 됐다. 벤투 감독은 직접 스페인까지 날아가 이강인의 기량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

27명 중 23세 이하 8명...30대 이상은 3명 뿐
오는 22일 볼리비아·26일 콜롬비아와 격돌

인이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군 경기를 통해 가능성을 엿본 벤투 감독은 그에게 한 자리를 내줬다.

백승호도 이강인과 비슷한 케이스다.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표팀 중원은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백승호는 중장거리인 대체 요원이다. 10대 시절 FC바르셀로나 유스팀에 몸담으며 이강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던 백승호는 오랜 기다림 끝에 A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벤투 감독은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된다.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서 관찰했다. 주로 2군 경기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선보인 결과"라며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팀에 잘 융화돼 성장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다. 이 과정을 보기 위해 (발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흥민(토트넘)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선수로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이강인을 두고는 "기술적으로 이미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대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판단할

수 있게 지켜보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는지, 소속팀에서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 2연전은 승패에 큰 의미가 없는 단순 평가전이자 오는 9월로 다가온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에 대비하기 위한 첫 발 걸음이다. 운영의 중심을 서서히 3년 뒤로 옮겨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벤투 감독은 27명 중 8명을 23세 이하 선수들로 채웠다. 27명 중 무려 24명이 20대다.

한창 성장 중인 김정민(리퍼링)과 새로운 도전에 나선 황인범(벤투버 화이트캡스), 축구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승우(베로나) 등이 포함됐다.

반면 만 서른살이 넘는 선수는 최철순(전북), 이청용(보훈), 정우영(알사드) 뿐이다.

벤투 감독은 "첫 번째 소집부터 아시안컵까지 계속 한 선수들이 많다. 이 선수들로 틀을 잡고 새로운 선수를 관찰·평가해서 새 선수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면서 "월드컵 예선이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연소 MVP' 선정 박지수 "여자농구 붐 일으키는 선수 될 것"

여자프로농구 역사상 가장 어린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제주 KB국민은행 박지수가

박지수는 11일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8~2019 우리은행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시상식에서 기자단 투표 101표 중 101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MVP에 선정됐다.

2018년 여자프로농구 전체 1순위로 국민은행에 입단한 박지수는 프로 입문 3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지난 시즌 시상식에서 28표를 받은 그녀가 올해 이룬의 여지없는 MVP가 되면서 WKBL '왕별'로 등극했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서도 "시상식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인지 처음 알았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한국 여자농구 인기가 많이 떨어져있는데 그 인기를 좀 더 살리고 싶다. 대표팀도 마찬가지고 한국 여자농구를 부흥시킬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다부진 포부를 밝혔다.

WNBA에선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단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선 매일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기도 했지만 대표팀을 왔다 갔다하며 장시간 비행을 하더보

만장일치 MVP는 2007~2008시즌, 2009~2010시즌 정선민(신한은행)에 이어 역대 세번째다.

동시에 만 20세3개월로 역대 MVP 수상자 가운데 최연소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존 최연소 기록은 2001년 겨울리그에서 MVP를 수상한 변연하의 20세11개월이었다.

공식 기자회견에 출석한 박지수는 "팀 동료들이 만들어준 상"이라며 "투표해주신 분들, 팀 동료 등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감사할 사람이 너무 많다"고 감격스러워했다.

역대 최연소 기록에 대해서는 "이런 어린 나이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흔치 않다. 조금이라도 일찍 넘어가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면서 "기록이라는 것은 언젠가 깨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은 누리고 싶다고 말했다.

데뷔 직후 신인상을 탔던 그는 프로 데뷔 3년 만에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정말 떨렸다. 못 받을

101표 가운데 101표 만장일치
"미국서 정신적으로 성장했다"

니 체력적인 관리가 잘되지 않았다. 또 뛰고 싶은 때 많은 시간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였다"면서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농구가 잘 안될때 내려놓는 법을 익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시 미국에서 뭘 지에 대해선 "구단과 이야기를 해보아한다"고 말한 그는 "민약 다시 가게 된다"며 다시 열심히 해내고 싶다고 말했다.

아직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은 챔피언결정전에서 아산 우리은행과 용인 삼성생명 승자와 맞붙는다.

박지수는 "쉬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운동을 더 타이팅하게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준비할 시간이 많은 것은 좋은 일이다. 잘 준비해서 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심의 여지없는 기술" 이강인, 벤투호서 연착륙할까

이강인, 역대 7번째 최연소로 A대표팀 선발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으로 불리는 이강인(18·발렌시아)이 성인 대표팀에 승선했다. 11일 오전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이 공개한 3월 A매치 27명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2001년 2월생으로 이제 막 만 18세를 넘긴 이강인은 국내 최고의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기회를 잡았다. 만 18세20일로 역대 7번째로 빠른 성인대표팀 발탁이다.

이강인은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의 유스팀 알레빈에 입단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른 성장속도를 보였고 지난해 10월31일 에브로와의 2018~2019 스페인 국왕컵(코파 델 레이) 32강 1차전을 통해 1군 무대에 데뷔했다.

만 17세253일로 한국인 최연소 유럽 1군 무대 출전이다.

이강인의 선발은 기성용(뉴캐슬)과 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의 대표팀 은퇴와 맞물려 본격적인 세대교체 명단에는 이강인을 포함해 무려 8명의 23세 이하 선수들이 포함됐다.

코칭스태프는 이강인의 기술에 대해서 이미 합격점을 내렸다. 대표팀에서 어떻게 녹아들지에 대해 기대하는 눈치였다.

벤투 감독은 "기술적으로 이미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전술적으로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무엇을 주문했을 때에 장점을 극대

화할 수 있을지 생각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이강인 본인이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는지, 또 향후 소속팀에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다"고 보냈다.

벤투 감독은 몇몇 기량이 좋은 선수가 아닌 팀을 강조한다. 기성용, 구자철이 대표팀을 떠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특정 선수를 선발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원을 택했다고 했다.

이강인으로 이런 기조에서 발탁됐다. 벤투 감독은 "이강인은 측면에서 윙포워드처럼 활약할 수 있고, 또 새도우 스트라이커로 중앙에서도 가능하다"며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포지션에서 가장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부른 목적이 있



다"고 설명했다.

이강인이 기대처럼 좋은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팀에 적응한다면 3월 A매치에서 데뷔할 가능성이 크다.

3월 평가전에서 그라운드를 밟았다면 역대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A매치를 경험하는 선수가 된다. 1위는 17세24일의 김관근, 2위는 18세7일의 김봉수다.

손흥민(토트넘)은 18세175일에 국가대표 성인 무대를 처음 경험했다. 이강인의 첫 성인대표팀 행보가 축구계의 가장 큰 이슈다.

자연의 숨겨진 보물 창고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라남도 구례군은 지리산오천, 창새미골, 회현사, 선전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야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